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연준 선호 인플레이 지표 완화... 소비 감소
- Bloomberg: 클리브랜드 연준, '인플레이 2% 되려면 3년은 걸린다'
- CNBC: 뉴욕 연준 총재, "고물가지만 올해 하반기 둔화 시작"

#### [미국 금융]

- Bloomberg: 물가 수치가 예상치에 부합되면서 국채 금리 하락

#### [인공지능]

- WSJ: 인텔사, 데이터 센터를 넘어 AI 에 베팅한다
- WSJ: 구글, AI '새로운 답변 시스템' 개선한다

#### [미중 경제]

- Bloomberg: 모건스탠리 전 임원, 미국의 대중 무역 정책 비판 ... '영원한' 무역 전쟁 경고
- WSJ: 중국 제조 주력 전략 약화... 수출 주도 성장에 의문 제기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NYT: 연방노동부, 아동 노동력 사용으로 현대자동차 등 고소
- Bloomberg: 항공사들, 기내식에 더 많은 냉동식품 제공 예상
- CNN Business: 지프, 북미 시장용 첫 번째 전기 SUV 공개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Fed's Favored Inflation Gauge Cools, Spending Unexpectedly Drops**

#### **연준 선호 인플레이 지표 완화... 소비 감소**

-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이른바 근원 개인 소비자 물가가 4월에 완화되고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결국 인하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한결 높아졌다는 것이다.
- 4월에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전월에 비해 0.2% 상승했다. 이는 올해 들어 증가율이 가장 낮은 수치이다. 오늘 금요일 연방경제분석국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
- 인플레이션 조정 소비자지출은 상품과 서비스 지출 감소로 0.1% 줄었다. 수요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 상승은 완만해졌다.

## Bloomberg 기사

**Bloomberg: Inflation Takes Three Years to Fall to 2% in Cleveland Fed Model****클리블랜드 연준, ‘인플레 2% 되려면 3년은 걸린다’**

- 클리블랜드 연준의 조사에 따르면 미 인플레는 2027년 중반까지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다.
- 이는 크게 보면 팬데믹 시대 충격에 따른 인플레 여파가 줄어들었는데 동시에 고물가를 이끄는 나머지 요인들이 매우 지속적이기 때문이라고 클리블랜드 연준의 이코노미스트 Randal Verbrugge는 밝혔다. 그는 이번 연구의 집필자.
- 그는 공급망과 연결된 인플레 등은 둔화되었지만 연준의 2%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인플레에 오랫동안 영향을 끼치는 임금 성장과 기업의 가격 변동과 같은 내재적인 요인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 Bloomberg 기사

**CNBC: Fed's Williams says inflation is too high but will start coming down soon****뉴욕 연준 총재, “고물가지만 올해 하반기 둔화 시작”**

- 뉴욕 연준 은행 John Williams 총재는 어제 “인플레가 여전히 높긴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 급속히 둔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 물론 그는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밝히지 않으면서 “올해 인플레가 예상보다 높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 진전 사항이 부족하다”는 연준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 그는 연준 일부 관리들의 입장과는 달리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 CNBC 기사

**[미국 금융]****Bloomberg: Treasury Yields Dip After Inflation Gauges Match Estimates**  
**물가 수치가 예상치에 부합되면서 국채 금리 하락**

- 4월 개인 소득과 지출 데이터를 동반한 양호한 물가 지표가 발표되면서 국채 금리가 약간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채는 약간의 손실을 만회했다.

- 이번에 발표된 4월 물가 지표는 연준이 금년말에 적어도 한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에 부합되었다. 연준 금리 정책에 더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이번 주 화요일 이래 가장 낮은 4.91% 아래로까지 잠깐 떨어지기도 했다.
- 한편 오늘 개인물가지출 지수 발표 직후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5% 아래로 떨어졌다.

### Bloomberg 기사

#### [인공지능]

#### **WSJ: Intel Betting on AI Well Beyond Data Centers** 인텔사, 데이터 센터를 넘어 AI에 베팅한다

- 인텔사는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컴퓨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소비자 제품 수요 상승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기업체들이 자신들의 AI 컴퓨팅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려는 노력으로 판단된다.
- 구체적으로 이 회사는 일부 회사들이 이미 데이터를 공공 클라우드에서 민간 환경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이 기업이 컴퓨터, 엣지 컴퓨팅, 소프트웨어에 이르는 제품에서 AI가 모두 적용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느 곳에서든지 AI가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한편 알파벳, 마이크로 소프트,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와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 WSJ 기사

#### **WSJ: Google Refines AI Search Overviews After Odd Results** 구글, AI '새로운 답변 시스템' 개선한다

- 구글이 인공지능(AI) 기반 답변을 제공하기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잘못된 답변 사례가 나타나면서, 'AI 개요(AI Overview)' 사용을 개선하고 있다.
- 이달 초에 출시된 'AI 개요'는 구글 검색 결과 상단에 링크 목록보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구글은 문제가 발생하는 패턴을 관찰한 후, 기술적인 기능 12가지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 
- 구글 검색을 총괄하는 Liz Reid 부사장은 목요일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사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드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 Bloomberg 기사

**[미중 경제]****Bloomberg: US Risks a 'Forever' Trade War With China, Economist Stephen Roach Says****모건스탠리 전 임원, 미국의 대중 무역 정책 비판 ... '영원한' 무역 전쟁 경고**

- 경제학자 Stephen Roach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정책이 양국 간의 끝없는 경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실수'라고 비판했다.
- 모건 스탠리 아시아의 전 회장인 그는 금요일 베이징에서 열린 행사에서 “중국에 대해 보호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큰 실수다. 중국은 기후 변화에 직면한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비탄소 대체 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데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바이든이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새로운 ‘영원한 전쟁’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이러한 발언은 중국의 새로운 에너지 제품 생산 능력에 대한 미국의 조치가 보호무역주의 행위라는 중국의 견해가 반영된 것이다.

## Bloomberg 기사

**WSJ: China's Strategy to Use Factories to Revive Growth Begins to Show Cracks****중국 제조 주력 전략 약화... 수출 주도 성장에 의문 제기**

- 중국의 제조 활동이 5월에 예기치 않게 후퇴하면서 두 달간의 성장세가 꺾였고, 이에 따라 수출 주도의 중국 경제 부흥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었다.
-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소비자들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신규 주문을 훨씬 앞서고 수출 의존도가 증가하는 등 현재의 성장 속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경고 신호가 이미 몇 달 전부터 나타났다.
- 금요일에 중국 국가통계국은 경제 모멘텀에 대한 첫 번째 주요 지표인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4월의 50.4에서 5월의 49.5로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기 성장과 위축을 구분하는 5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 특히 신규 수출 주문이 급감한 것은, 중국이 부동산 부문의 약세를 상쇄하기 위해 고급 제조업과 수출을 두 배로 늘린 점에서 우려할 만한 부분이다.

## WSJ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NYT: U.S. Accuses Hyundai and Two Other Companies of Using Child Labor

#### 연방 노동부, 아동 노동력 사용으로 현대자동차 등 고소

- 연방 노동부가 앨라배마주에서 아동 노동력을 사용한 혐의로 현대자동차를 고소했다. 13세 소녀를 포함한 아동들이 자동차 부품 생산 라인에서 주당 최대 60시간 일한 것에 대해 현대자동차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의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에서 노동부는 현대자동차가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아동을 고용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부는 인력 에이전시인 Best Practice Service가 이 공장에서 일할 아동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성명을 통해 “아동 노동은 자사가 추구하는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가 전례 없는 법적 이론을 이용해 현대 자동차에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의 행동을 자사 책임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NYT 기사

### Bloomberg: Airlines May Serve Up More Frozen Food for In-Flight Meals

#### 항공사들, 기내식에 더 많은 냉동식품 제공 예상

- 싱가포르의 SATS 공항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기내식을 이용하는 항공사들은 냉동 보관된 음식을 더 많이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SATS는 목요일 브리핑에서 소비자들이 냉동 기내식과 기존 방식으로 조리된 음식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기술 발전으로 이제는 갓 조리한 음식만큼이나 맛있는 냉동식품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Bloomberg 기사

### CNN Business: Jeep reveals its first EV for America

#### 지프, 북미 시장용 첫 번째 전기 SUV 공개

- 지프가 북미 시장을 위한 첫 번째 완전 전기 SUV 인 ‘Wagoneer S’를 공개했다.
- 기업은 이미 유럽에서 소형 Avenger EV를 판매하고 있지만, 목요일 밤에 공개된 Wagoneer S는 올해 말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된 후 다른 시장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다. 이는 지프의 첫 번째 ‘글로벌 EV’로 기대된다.

- 전기 자동차에 대한 규제 요건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관심이 줄어드는 시점에 출시된다는 점에서, 지프가 Wagoneer S를 통해 전기 자동차 시장에 대한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지 관심 거리다.
- 지프 CEO Antonio Filosa는 향후 수요가 있을 경우 램차저 픽업과 유사한 기술을 갖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의 Wagoneer S를 출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CNN Business 기사

## "연준 인사들 "인플레이션 둔화 보고 있다"...금리인하 시점엔 "글썸"

### "달러스·뉴욕 등 연은총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 피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은 올해 노동시장 강세에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금리 인하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로리 로건 달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연준이 지표를 보고 대응 방안을 결정할 때 "유연성을 유지하고 모든 선택지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현재 통화정책이 제약적이지 않을 수 있다"면서 "통화정책의 특정 경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며 금리인하를 검토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